

서구아너스,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감동 나뉜다

27일, 결혼이민자 가정 모국방문 소감공유회 개최

16가정 53명 참여...가족에 회복·문화적 정체성 형성 계기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 소감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의 고역기부자 모임 '서구아너스'가 후원한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구는 27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 등 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소감공유회'를 열고 모국 방문 경험과 가족 재회의 감동을 나눴다.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기간 고향을 찾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서구아너스가 3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이상 모국 방문 이력이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진행해 16가정 5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가족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베트남, 중국, 대만,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등을 찾아 부모와 형제자매를 만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자녀들은 외갓집을 방문해 어머니의 성장 배경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모국 방문 과정과 현지에서의 추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참여자들의 소감을 공유했다.

한 참여자는 "아이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처음 만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오랜 병환으로 걱정하던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 큰 위로가 됐다"며 "고향의 정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모국 방문 지원을 넘어 가족 간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구아너스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아너스는 지난해에도 '엄마나라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에 2600만원을 후원해 결혼이민자 15가정 52명의 모국 방문을 지원했으며 올해까지 총 31가정 105명의 가족 재회를 도왔다. /이가영 기자

광주 남구, 국민체육센터 준공 '마침표'

30일 준공식 개최...9월 개관 초입기 주민 건강·생활체육 거점 추가 확충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마침표를 찍고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돌입한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이 오는 30일 열린다. 준공식에는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생활체육 관계자와 주민 등 100여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건립한 시설로, 지난 2021년에 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2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을 거쳐

지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공간으로 조성됐다.

센터 내부에는 다양한 실내 체육 활동이 가능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과 주민 편의 공간이 마련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주거지 주차장 40면과 공동 회의실, 공용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남구는 시설 점검과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에 정식 개관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체육 활동은 물론 중장년층과 어르신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는 복합 체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정식 개관 전까지 시설 안전 점검과 운영 시스템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생활체

육 활성화의 거점 역할도 맡게 된다.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와 주민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쾌적한 시설과 편의 공간을 바탕으로 이용 만족도 향상도 기대된다. 공동 회의실은 주민 모임과 생활체육 관련 회의 장소로 활용된다. 공용 샤워실과 주차시설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남구는 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주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지역 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전경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
※ 시공업체 : (주)동천산업개발

3월 9일(월) 공가세대부터 공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사 진행하는 곳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 2026. 3. 9(월) ~ 2026년 완료시까지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왕검